중학생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조 은 아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Knowledge and Attitude for Breast Feed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Eun A Cho

Department of Nursing, Honam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middle school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related to breast feeding. **Methods:** The knowledge and attitudes related to breast feeding were measured by structured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using the SPSS/WIN 17.0 program. **Results:** The level of knowledge of breast feeding was 9.02 points out of 25 points, in average. Attitudes towards breast feeding was 3.77 points out of 5 points, in averag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knowledge of breast feeding according to grade, feeding type, family type, experiences of observing breast feeding, experiences of obtaining breast feeding information, will to practice breast feeding, and the reasons for low breast feeding rat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s breast feeding according to gender, grade, feeding type, family type, experiences of observing breast feeding, experiences of obtaining breast feeding information, timing of breast feeding education, will to practice breast feeding, and the reasons for low breast feeding rate.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knowledge of breast feeding and attitudes towards breast feeding. **Conclusion:** Middle school students should be provided with various education programs to improve their knowledge of and attitudes toward breast feeding.

Key Words: Breast feeding, Knowledge, Attitudes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모유는 항체가 포함되어 있어 면역학적 가치가 있으며 알레르기 질환을 방지하고 자궁수축이 잘 되어 산후에 건강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경제적, 위생적이며 모아간에 강한 애착을 발달시키며 4~6개월간은 아기에게 모유만 먹여도 충분할 정도

의 영양을 가지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음식이다(Lee et al., 2011).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모유수유율이 1970년대 90%였으나 1988년 48.1%, 2000년 10.2%였던 감소하다가 2006년 24.2%로 상승하였으나(Kim, Cho, Kim, Doh, & Lee, 2006) OECD 국가 중 40%가 넘는 헝가리, 30%가 넘는 일본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OECD, 2009). 또한 분만 후 1주일 이내 58.9%였던 완전모유수유율은 6개월시에는 14.0%로 낮아지면서 급

Corresponding author: Eun A Cho

Department of Nursing, Honam University, 417 Eodeung-ro, Gwangsan-gu, Gwangju 506-714, Korea.
Tel: +82-62-940-5549, Fax: +82-62-940-5068, E-mail: jouoa@honam.ac.kr

- 이 논문은 2013년 호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Honam University in 2013.

투고일: 2014년 4월 4일 / 심사완료일: 2014년 8월 19일 / 게재확정일: 2014년 8월 20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이며(Kim et al., 2006) 3~6개월에 모유수유를 중단하는 경우는 2006년 18.7%, 2009년 23.1%로 모유수유 중단시기는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Kim, Kim, Cho, Cho, & Lim, 2009). 모유수유 영향 요인으로는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수유방법에 대한 아버지의 견해, 모유수유 교육여부, 모유수유 계획여부, 모유수유 경험여부, 어머니의 취업상태, 분만기관에서의 모유수유 권장, 학력, 연령, 경제적 상태, 모유량 부족, 분만형태 등이었다(Lee, Park, & Park, 2002; Park, 2002; Sohn, 2007; Yeo, 2005). 그리고 모유수유를 중단하는 원인으로는 모유량 부족, 시기가 되어서, 취업, 아기의 건강, 산모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정보부족, 잘못된 인식이 원인이라는 연구결과(Kim et al., 2009; Kim & Choi, 2001)와 모유수유에 관련된 의지, 자신감, 지식의 부족, 모유수유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태도 등의 모유수유를 저해한다는 연구(Lee, Song, & Kang, 2008)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모유수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며,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개인의 태도 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 전반적인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Kim, 2009).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모유수유 홍보활동 및 모유수유 권장 프로그램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Park, 2002) 그 일환으로서 청소년기부터 체계적이며 현실적인 모유수유에 대한 조기교육이 필요하다.

수유방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산모본인으로 대다수의 산모가 임신 전에 수유방법을 결정하므로 출산 전, 임신 전부터 정보제공과 확대된 교육이 필요하며 청소년기부터 학교에서 모유수유의 장점뿐 아니라 수유방법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하다(Jung, Kim, Park, Shin, & Park, 2010; Song, Kim, Lee, Yoo, & Kang, 2007). 즉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기부터 모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모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Park, 2002). 모유수유가 가장 자연스럽고 이상적이며 좋은 영양방법이라는 것을 알게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미래 배우자가 될 남학생에 대해서도 모유수유를 권장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Song, Cho, Lee, & Kim, 2008). 기존연구에서도 모유수유에 대한 적당한 교육시기로는 고등학교 40.4%, 중학교 20.5%, 대학교 14.6%로 나왔으며(Kim & Choi, 2001), Choi와 Lee(2006)의 연구에서는 출산 전 15.3%에 비해 고등학교 33.5%, 중학생 22.2%로 중학교 시기가 모유수유하기에 적당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달과 더불어 성-역할 정체성을 정착시키는 시기로 달성해야 할 발달과제는 신체 성장 수용, 정서적 독립 성취, 결혼과 가정생활을 위한 준비, 직업을 위한 준비,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사회적 역할의 성취 등이 있다(Kim et al., 2011). 또한 다른 문화나 지역사회의 규범, 표준의 차이를 알고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문화에 대해 신념을 갖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시기이다(Kim et al., 2011).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대한 수용력이 매우 높은 중, 고교생들은 현재 모유수유에 대하여 의사결정자는 아니지만 이 시점에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면 미래에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Choi & Lee, 2006). 특히 중학생은 초기 청소년기로 이 시기의 교육은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유수유에 대한 연구로는 고교생(Choi & Lee, 2006), 여대생(Kim & Choi, 2001; Lee et al., 2008) 등이 있으나 중학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모유수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애주기별, 지식수준별 교육 및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Lee et al., 2008)으로 중학교때부터 모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모유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긍정적인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로 연결되어 모유수유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생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향후 중학생의 모유수유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에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모유수유 지식, 태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 태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모유수유 지식과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학생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파악

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2개 중학교의 학생으로 총 530부를 배부하여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답변과 내용이 누락된 설문지 46부를 제외한 484부(91.3%)를 최종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중학교에 재학중인 1, 2, 3학년 학생
-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동의한 학생

3. 연구도구

1) 모유수유 지식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모유수유 지식 측정도구는 Lee (1997)가 개발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도구는 총 25문항으로 영아에게 이로운 점 8문항, 산모에게 이로운 점 4문항, 모유수유의 방법과 기술 및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하는 방법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에 1점, 오답과 모르겠다에 0점을 주어 총 25점이 만점이 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 였다.

2) 모유수유 태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모유수유 태도 측정도구는 Jung (1997)가 초산모를 대상으로 개발한 모유수유 태도에 관한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모성간호학 교수 1인, 아동간호학 교수 1인, 대학병원 산부인과병동 수간호사 1인, 대학병원 산부인과병동 3년 이상의 경력간호사 2인 등 총 5명의 전문가와 협의 후 초산모에게만 해당되는 문항을 제외한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런 편이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하였다. 부정적 문항은 역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호의적임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8$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 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7월이며, 자료수집에 앞서 2개 중학교의 학교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진행에 대한 허락과 협조를 얻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자의 익명성을 약속하였다. 또한 자발적인 연구참여 동의와 거부, 중도포기 가능, 발생 가능한 이익과 불이익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한 후 대상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연구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자료수집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모유수유 지식,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 태도를 비교하기 위해 t-test,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 검증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대상자의 모유수유 지식,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69.6%가 여자였고, 1학년이 34.3%, 2학년이 33.3%, 3학년이 32.4%였다. 종교 없음이 46.1%로 가장 많았으며 성장기 수유형태는 모유수유 32.3%, 혼합수유 21.1%, 인공수유 10.5% 순이었다. 성장기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79.9%로 가장 많았으며 모유수유 관찰 경험은 64.5%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유수유 교육, 정보 얻은 경험에 있는 경우는 10.3%였고, 정보 출처는 46.0%가 부모, 36.0%가 대중매체에서 정보를 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람직한 모유수유 정보제공자는 58.1%가 부모, 20.7%가 보건교사로 조사되었다. 적당한 모유수유 교육시기로는 출산전후가 29.7%였고 중학교가 19.2%, 고등학교가 16.5%였다. 모유수유 실천 의지는 '꼭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26.2%, '상황에 따라 실시'한다는 응답이 65.7%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모유수유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엄마의 직업 때문이 24.6%, 엄마의 실천의지 부족이 24.0%, 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48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47 (30.4)
	Female	337 (69.6)
Grade level	1st	166 (34.3)
	2nd	161 (33.3)
	3rd	157 (32.4)
Religion	Christianity	158 (32.6)
	Others	103 (21.3)
	None	223 (46.1)
Feeding type	Complete breast feeding	156 (32.2)
	Formula feeding	51 (10.5)
	Mixed Feeding	102 (21.1)
	Non-memory	175 (36.2)
Family type	Nuclear family	383 (79.1)
	Extended family	76 (15.7)
	Non-memory	25 (5.2)
Breast feeding observation experience	Yes	312 (64.5)
	No	172 (35.5)
Previous breast feeding information	Yes	50 (10.3)
	No	434 (89.7)
Sources of information (n=50)	Health care provider	2 (4.0)
	Parents	23 (46.0)
	Mass media	18 (36.0)
	Health teacher	7 (14.0)
Information provider	Health care provider	88 (18.1)
	Parents	281 (58.1)
	Mass media	15 (3.1)
	Health teacher	100 (20.7)
Time of breast feeding education	Elementary school	29 (6.0)
	Middle school	93 (19.2)
	High school	80 (16.5)
	University	38 (7.9)
	Before and after marriage	100 (20.7)
	Before and after childbirth	144 (29.7)
Practice of breast feeding	Necessary	127 (26.2)
	Situationally	318 (65.7)
	Unnecessary	39 (8.1)
Reason for low breast feeding rate	Lack of knowledge	95 (19.6)
	Mother's lack of action will	116 (24.0)
	Mother's job	119 (24.6)
	Others	154 (31.8)
Education Required	Unnecessary	103 (21.3)
	Situationally	261 (53.9)
	Necessary	120 (24.8)

식부족이 19.6%, 기타(엄마의 건강, 모유량 부족, 아기문제, 분유에 대한 과대선전, 핵가족화) 31.8%로 조사되었다. 모유수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불필요 21.3%, 보통 53.9%, 필요 24.8%로 조사되었다.

2.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

대상자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의 전체 평균 점수는 9.02 ± 4.85

Table 2. Knowledge, Attitude for Breast Feeding

(N=484)

Variables	Items	M±SD	Minimum	Maximum
Knowledge	25	9.02±4.85	0.00	22.00
Beneficial to baby	8	4.22±2.38	0.00	8.00
Beneficial to mothers	4	1.01±1.11	0.00	4.00
Breast feeding methods, techniques and problem solving	13	3.79±2.63	0.00	11.00
Attitude	14	3.77±0.51	2.43	5.00

(25점 만점)이었으며, 영아에게 이로운 점이 4.22 ± 2.38 , 산모에게 이로운 점이 1.01 ± 1.11 , 모유수유 방법과 기술 및 문제 해결점이 3.79 ± 2.63 로 나왔다. 각 문항별 정답률은 ‘모유먹는 아기는 우유 먹는 아기에 비해 치아가 튼튼하다’가 68.2%로 가장 높았으며, ‘모유 먹는 아기는 우유먹는 아기에 비해 감기에 덜 걸린다’가 68.0%, ‘모유 속에는 아기의 두뇌 발달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있다’가 61.8%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젖먹이는 동안 약중에 페니실린은 먹어도 된다’가 6.6%, ‘젖몸살이 나면 수유 횟수를 줄여야 한다’가 8.5%, ‘아기가 과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젖은 4시간마다 먹이는 것이 좋다’가 15.5%로 정답률이 낮았다.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70점 만점에 52.80 ± 7.20 이었고 평균평점은 3.77 ± 0.51 이었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 태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 태도 정도는 Table 3, 4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은 학년($F=5.31, p=.005$), 성장기 수유형태($F=12.64, p<.001$), 성장기 가족형태($F=8.33, p<.001$), 모유수유 관찰 경험($t=2.43, p=.016$), 모유수유 정보 얻은 경험($t=2.99, p=.003$), 모유수유 실천 의지($F=12.39, p<.001$), 모유수유를 낫은 이유($F=4.11, p=.00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대상자가 1학년(9.37), 3학년(9.66)인 경우 2학년(8.02)보다 지식이 높았고, 성장기 수유형태는 모유수유(10.45)와 혼합수유(9.67)를 한 경우가 모른다(7.39)에 비해 지식이 유의하게 높았다. 모유수유 관찰 경험은 있는 경우(9.41)가 없는 경우(8.30)에 비해,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경험이 있는 경우(10.94) 없는 경우(8.80)에 비해 지식이 높았다. 모유수유 실천 의지는 ‘꼭 실시’의 경우(10.77)가 ‘상황에 따라 실시’(8.49), ‘꼭 할 필요 없음’(7.62)에 비해 지식이 높았다. 모유수유를 낫은 이유에서는 엄마의 직업이라고 한 경우(10.24)가 기타라고 한 경우(8.19; 엄마의

건강, 모유량 부족, 아기문제, 분유에 대한 과대선전, 핵가족화)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모유수유 지식이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성별($t=-3.58, p<.001$), 학년($F=5.30, p=.005$), 성장기 수유형태($F=7.33, p<.001$), 성장기 가족형태($F=3.60, p=.028$), 모유수유 관찰 경험($t=6.28, p<.001$), 모유수유 정보 얻은 경험($t=4.81, p<.001$), 모유수유 교육시기($F=2.74, p=.019$), 모유수유 실천 의지($F=57.88, p<.001$), 모유수유를 낫은 이유($F=4.74, p=.003$)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가 여자인 경우(53.56) 남자(51.05)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3학년(54.32)인 경우 1학년(52.18), 2학년(51.96)에 비해 태도 점수가 높았다. 성장기 수유형태는 모유수유를 한 경우(54.67) 모른다(51.06)에 비해 모유수유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성장기 가족형태는 핵가족(53.07)과 대가족(52.63)이 모른다(49.12)에 비해 태도 점수가 높았다. 모유수유 관찰 경험이 있는 경우(54.27)가 없는 경우(50.13)에 비해,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경험이 있는 경우(57.39)가 없는 경우(52.28)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적당한 모유수유 교육시기에서는 중학교라고 한 경우(54.24) 출산전후(51.27)라는 한 경우에 비해 태도 점수가 높았으며, 모유수유를 ‘꼭 실시해야 한다’는 경우(57.69)가 ‘상황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는 경우(51.36)보다 태도 점수가 높았으며, ‘상황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는 경우가 ‘꼭 할 필요 없음’(46.95)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모유수유를 낫은 이유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엄마의 직업이라고 한 경우(54.34)가 기타(51.19)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4. 모유수유 지식, 태도와 의 상관관계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유수유 지식과 태도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r=.38, p<.001$)를 보였다.

Table 3. Knowledge on Breast Feeding by General Characteristics

(N=484)

Characteristics	Categories	Knowledge			Scheffé
		M±SD	t or F	p	
Gender	Male	9.63±4.83	1.85	.066	
	Female	8.75±4.84			
Grade level	1st ^a	9.37±4.97	5.31	.005	a, c > b
	2nd ^b	8.02±4.55			
	3rd ^c	9.66±4.88			
Religion	Christianity	9.16±4.97	0.89	.414	
	Others	9.47±5.01			
	None	8.72±4.68			
Feeding type	Complete breast feeding ^a	10.45±4.57	12.64	< .001	a, c > d
	Formula feeding ^b	8.90±4.64			
	Mixed Feeding ^c	9.67±4.63			
	Non-memory ^d	7.39±4.81			
Family type	Nuclear family ^a	9.29±4.84	8.33	< .001	a, b > c
	Extended family ^b	8.67±4.66			
	Non-memory ^c	5.28±3.91			
Breast feeding observation experience	Yes	9.41±4.76	2.43	.016	
	No	8.30±4.93			
Previous breast feeding information	Yes	10.94±4.68	2.99	.003	
	No	8.80±4.82			
Sources of information (n=50)	Health care provider	7.05±0.71	0.65	.587	
	Parents	10.70±4.95			
	Mass media	11.00±3.97			
	Health teacher	12.57±6.01			
Information provider	Health care provider	8.81±4.72	0.56	.639	
	Parents	8.90±4.97			
	Mass media	10.13±4.36			
	Health teacher	9.38±4.69			
Time of breast feeding education	Elementary school	9.48±4.34	1.43	.213	
	Middle school	10.08±5.18			
	High school	8.91±5.13			
	University	9.29±4.63			
	Before and after marriage	8.52±4.20			
	Before and after childbirth	8.58±4.99			
Practice of breast feeding	Necessary ^a	10.77±4.93	12.39	< .001	a > b, c
	Situationally ^b	8.49±4.85			
	Unnecessary ^c	7.62±4.79			
Reason for low breast feeding rate	Lack of knowledge ^a	8.97±4.57	4.11	.007	c > d
	Mother's lack of action will ^b	8.91±5.32			
	Mother's job ^c	10.24±4.94			
	Others ^d	8.19±4.40			

논 의

본 연구는 중학생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파악하여 추후 중학생의 모유수유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

고자 시도하게 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정도는 25점 만점에 9.0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평균점수는 36.08점으로 중간 이하인 것으로 나타

Table 4. Attitude on Breast Feeding by General Characteristics

(N=484)

Characteristics	Categories	Attitude			Scheffé
		M±SD	t or F	p	
Gender	Male	51.05±6.85	-3.58	< .001	
	Female	53.56±7.23			
Grade level	1st ^a	52.18±7.25	5.30	.005	a, b < c
	2nd ^b	51.96±7.14			
	3rd ^c	54.32±7.03			
Religion	Christianity	53.34±7.44	1.43	.241	
	Others	53.27±7.03			
	None	52.20±7.10			
Feeding type	Complete breast feeding ^a	54.67±7.20	7.33	< .001	a > d
	Formula feeding ^b	52.35±6.28			
	Mixed Feeding ^c	53.16±6.80			
	Non-memory ^d	51.06±7.31			
Family type	Nuclear family ^a	53.07±7.24	3.60	.028	a, b > c
	Extended family ^b	52.63±6.68			
	Non-memory ^c	49.12±7.45			
Breast feeding observation experience	Yes	54.27±6.95	6.28	< .001	
	No	50.13±6.90			
Previous breast feeding information	Yes	57.39±7.02	4.81	< .001	
	No	52.28±7.05			
Sources of information (n=50)	Health care provider	56.00±2.83	0.16	.921	
	Parents	56.78±6.83			
	Mass media	58.24±7.17			
	Health teacher	57.71±8.96			
Information provider	Health care provider	52.27±6.33	0.48	.696	
	Parents	52.70±7.19			
	Mass media	53.33±6.67			
	Health teacher	53.46±8.04			
Time of breast feeding education	Elementary school ^a	52.72±7.22	2.74	.019	b > f
	Middle school ^b	54.24±7.74			
	High school ^c	54.10±6.62			
	University ^d	51.89±5.48			
	Before and after marriage ^e	52.99±7.45			
	Before and after childbirth ^f	51.27±7.06			
Practice of breast feeding	Necessary ^a	57.69±6.80	57.88	< .001	a > b > c
	Situationally ^b	51.56±6.35			
	Unnecessary ^c	46.95±6.47			
Reason for low breast feeding rate	Lack of knowledge ^a	52.74±7.18	4.74	.003	c > d
	Mother's lack of action will ^b	53.41±7.79			
	Mother's job ^c	54.34±7.30			
	Others ^d	51.19±6.38			

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정도를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른 도구를 사용하였지만 33점 만점에 16.46으로 나온 연구(Kim & Choi, 2001)와 비교해도 낮은 점수이다. 이것은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 정보를 얻은 경험은 10.3%만이 있다고 한 부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Choi (2001)의 연구에서 79.9%가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고 하였으며, 배우자

의 경우 94.5%가 정보를 얻은 것(Jin, 2011),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0.3%가 모유에 대한 정보 경험이 있다는 것(Choi & Lee, 2006)과도 매우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모유 수유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얻은 경험이 거의 없었던 것이 본 연구대상자의 지식정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중학교 교과서 32편과 고등학교 교과서 15편을 대상으로 소아 및 육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모유는 생후 4개월 동안만 영양식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Kim et al., 2007). 또한 초, 중, 고등학교 보건교과서를 참고하여 보건 교육의 영역을 분류한 내용을 보면 성장과 발달, 신체기관별 건강관리, 건강한 생활습관, 일상생활에서의 증상관리, 정신 건강, 성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 구강보건, 안전교육, 응급처치, 전염병 관리, 가정건강과 간호, 환경보건, 식품과 건강, 지역사회 보건, 건강과 복지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으나 모유 수유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Yun et al., 2005) 정규 교과과정이나 특별과정을 통한 중학생에 대한 모유수유 교육이 더욱 확대 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도 적당한 모유수유 교육시기로 19.2%가 중학교, 16.5%가 고등학교, 7.9%가 대학교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Choi (2001)의 연구에서 20.5%가 중학교 재학중에 모유수유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과 Choi와 Lee (2006)의 연구에서 22.2%가 중학생때를 적당한 교육시기로 생각하는 것과 거의 일치하는 부분으로 조기 모유수유 교육이 필요하다.

영역별로는 영아에게 이로운 점을 다룬 영역의 점수는 높은 반면, 산모에게 이로운 점을 다룬 영역과 모유수유 방법, 기술 및 문제 해결점을 다룬 영역이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Lee (1997)의 연구에서 영아에게 이로운 점을 다룬 영역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대부분 상식적인 내용인 영아에게 이로운 점은 잘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인 산모에게 이로운 점과 모유수유 방법, 기술 및 문제 해결점을 다룬 영역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도 ‘모유먹는 아기는 우유먹는 아기에 비해 치아가 튼튼하다.’가 68.2%로 정답율이 가장 높았으나 ‘젖먹이는 동안 약 중에 페니실린은 먹어도 된다’가 6.6%, ‘젖몸살이 나면 수유 횟수를 줄여야 한다’가 8.5%로 낮아 구체적이며 전문적인 부분은 정답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모유수유 정보를 얻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도 46.0%가 부모, 36.0%가 대중매체 등 비전문적인 절차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모유수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점수는 70점 만점에 52.80 ± 7.20 이

었고,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77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Choi (2001)의 연구에서 4점 만점에 3.04점(5점 만점에 3.8)보다 낮은 점수이나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Choi와 Lee의 연구(2006)에서 4점 만점에 2.92점(5점 만점에 3.65)보다 높은 점수이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Choi와 Lee (2006)의 연구에서는 태도 점수가 높은 군일수록 미래의 모유수유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았고, 모유수유가 가장 쉽고 자연스러우며 최고의 수유방법임을 믿는 긍정적 태도를 가진 어머니가 모유수유를 더 오랫동안 모유수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Kim, 2009) 모유수유 태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은 대상자의 학년, 성장기 수유형태, 성장기 가족형태, 모유수유 관찰 경험, 모유수유 정보 얻은 경험, 모유수유 실천 의지, 모유수유를 낮은 이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기 수유형태는 모유수유와 혼합수유를 한 경우 모른다에 비해 모유수유 지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Choi (2001)의 연구에서도 성장기 인공수유군보다 모유수유군의 지식이 유의하게 높은 부분과 일부 유사한 부분이다.

모유수유 관찰 경험이 있는 경우 모유수유 지식이 높았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가족이나 주위의 모유수유에 대한 관찰 경험이 모유수유 지식을 높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경험이 있는 경우 모유수유 지식이 높았는데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Choi (200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정보를 얻은 경험이 지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서 여러 가지 방법과 경로로 통한 전 국민적인 모유수유 교육과 더불어 조기에 중학생에게 맞는 동영상이나 모형을 통한 모유수유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모유수유 실천 의지는 ‘꼭 실시’해야 한다고 한 경우 ‘상황에 따라 실시’, ‘꼭 할 필요 없음’에 비해 모유수유 지식이 높아, 지식이 높은 경우 모유수유 실천 의지가 더 강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직장을 가져도 모유를 먹이겠다’고 답한군에서 지식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Kim과 Choi (2001)의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Yeo (2005)의 연구에서는 모유수유 교육여부에 따라 모유수유 기간이 1.88개월이나 차이가 있었으며, 모

유수유 실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교육보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성별, 학년, 성장기 수유형태, 성장기 가족형태, 모유수유 관찰 경험, 모유수유 정보 얻은 경험, 적당한 모유수유 교육시기, 모유수유 실천 의지, 모유수유를 낫은 이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가 여학생인 경우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Choi와 Lee (2006)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태도가 긍정적인 부분과 일치하는 것으로 미래 어머니로서의 바람직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Jin (2011)의 연구에서는 모유수유에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는 산모 다음으로 남편이 영향을 미쳤으나, 배우자들이 근거없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중고등학교부터 모유수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미래의 아버지가 될 남학생들에게도 배우자에게 모유수유를 권장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Song et al., 2008)고 하여 남학생들에 맞는 모유수유 교육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학년의 경우 1학년과 2학년에 비해 3학년이 모유수유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고학년일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Choi와 Lee (2006)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성장기 수유형태에 따라서도 모유수유를 한 경우가 모른다고 한 경우에 비해 모유수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Choi (2001)의 연구에서 모유수유와 혼합수유를 한 경우가 인공수유 군보다 유의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성장기에 모유수유를 한 경우에 모유수유를 계획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Choi & Lee, 2006; Kavanagh, Lou, Nicklas, Habibi, & Murphy, 2012) 성장기 수유형태가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모유수유 관찰 경험이 있는 경우 긍정적 태도를 보여 모유수유 관찰 경험은 모유수유 지식과 태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핵가족화와 형제의 수가 줄어드는 현대사회에서 자연스런 가족간의 모유수유 경험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에 좀 더 정규적인 학교 교육과정과 사회적인 홍보를 통한 간접경험을 통해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경험이 있는 경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Kim과 Choi (200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Spear (2007)의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유수

유에 대한 태도와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36.7%가 고등학교에서 특수코스를 신청하여 모유수유에 대해 배웠으며 11.3%가 중학교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배웠는데, 정규교육 과정에서 모유수유 촉진에 대한 지지를 받은 대상자가 모유수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특히 교과서에서 실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의한 정보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성장하여 부모가 되었을 때 육아에 직접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으므로(Kim et al., 2007) 정규 교과 과정을 통한 좀 더 전문적이고 중학교 수준에 맞는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모유수유 실천 의지는 꼭 실시해야 한다는 경우가 상황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는 경우보다, 상황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는 경우가 꼭 할 필요 없다는 경우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와 Lee (2006)의 연구에서 태도점수가 높은 군일수록 모유수유의 의지가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결과 중학생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Choi (2001), Lee 등(2008)의 연구,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Cho와 Kim (201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은 매우 낮았으며 태도 또한 대학생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적으로 실시된 보건교과 교육은 현재의 건강 지식, 건강태도 및 건강행위를 변화시키는데도 효과적이지만 평생 건강행위에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Cho, 2009) 중학생 시기의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이 된다면 다음세대에도 긍정적이며 건강한 모유수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교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험식 교육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므로(Park, Jung, Lee, & Kim, 2012)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중학생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자료의 개발과 보급 및 보건교과 등의 정규 교과 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생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는 매우 낮은 편이었으며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중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은 학년, 성장기 수유형태, 성장기 가족형태, 모유수유 관찰 경험, 모유수유 정보 얻은 경험, 모유수유 실천 의지, 모유수유를 낮은 이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유수유 관찰 경험이 있는 경우,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경험이 있는 경우, 모유수유를 ‘꼭 실시’해야 한다는 경우 모유수유 지식이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성별, 학년, 성장기 수유형태, 성장기 가족형태, 모유수유 관찰 경험, 모유수유 정보 얻은 경험, 적당한 모유수유 교육시기, 모유수유 실천 의지, 모유수유를 낮은 이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성인 경우, 성장기 모유수유를 한 경우, 모유수유 관찰 경험이 있는 경우,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경험이 있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 지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태도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장기 모유수유를 했거나, 모유수유 관찰 경험이 있거나, 정보를 얻은 경험이 있는 경우 모유수유 지식과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찰이나 교육 경험 등이 모유수유의 지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핵가족화와 자녀수의 감소에 따라 모유수유 관찰 경험과 가족을 통한 정보를 얻는 경험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중학생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수준의 모유수유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학생의 지식과 태도에 대한 반복연구 및 교육요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중학생의 수준에 맞는 모유수유에 대한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중학교 정규 교과나 보건교과 내에 모유수유의 장점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Cho, E. A., & Kim, K. H. (2013). Knowledge, attitude and education needs regarding breast feeding of women's mothers and mother-in-law.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etary Culture*, 28(3), 1-9.
- Cho, J. M. (2009). The effects of regular health education affecting health knowledge, attitude, behavior on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2(2), 49-59.
- Choi, K. S., & Lee, H. J. (2006). A study on knowledges and attitudes about breast milk feeding and needs for breast milk feeding educ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11(2), 191-204.
- Jung, J. H., Kim, M. K., Park, J. S., Shin, K. S., & Park, E. J. (2010). A survey on understanding and actual condition of breast-feeding of woman at oriental medicine hospital postpartum care center.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Pediatrics*, 24(2), 13-21.
- Jung, K. H. (1997). *Effect of the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on promoting the breast-feeding practice in primipar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University, Seoul.
- Jin, S. H. (2011). *Knowledge and perception toward breast feeding of the spouses of the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Daegu.
- Kavanagh, K. F., Lou, Z., Nicklas, J. C., Habibi, M. F., & Murphy, L. T. (2012). Breastfeeding knowledge, attitudes, prior exposure, and intent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Human Lactation*, 28(4), 556-564.
- Kim, J. H., Park, S. W., Shin, S. M., Sung, I. K., Park, M. J., Chung, Y. M., et al. (2007). A review of the contents about childhood health care in middle & high school textbooks.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50(4), 340-347.
- Kim, S. G., Cho, A. J., Kim, Y. K., Doh, S. R., & Lee, G. W. (2006). *(The) survey on the national fertility, family health and welfare in Korea*, 310-311,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S. G., Kim, Y. K., Cho, A. J., Cho, H. R., & Lim, S. E. (2009). *The 2009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family health and welfare in Korea*, 282-294,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S. H. (2009). Factors explaining mothers breastfeeding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15(4), 270-279.
- Kim, S. H., & Choi, E. S. (2001). The knowledge and attitude on breast feeding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7(1), 93-106.
- Kim, Y. H., Kwon, B. S., Nam, H. K., Ahn, M. S., Yang, Y. O., Oh, S. E., et al. (2011). *Wong's essentials of pediatric nursing (8th ed.)*, 672-684, Seoul: Hyunmoonsa.
- Lee, E. J. (1997). *The effect of prenatal breastfeeding education on breastfeeding practice and retention of knowled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Lee, H. K., Song, Y., & Kang, N. M. (2008). A survey of female colleg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breastfeeding.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13(3), 367-373.
- Lee, J. Y., Park, S. W., & Park, J. H. (2002). A survey on breast-

- feeding practices and its related factors in Pohang C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6(1), 149-167.
- Lee, K. H., Lee, Y. S., Ko, M. S., Kim, H. J., Park, N. J., Park, Y. J., et al. (2011). *Maternity & women's health nursing II*, 44-53, Seoul: Hyunmoon. OECD(2009). <http://www.oecd.org/els/family/43136964.pdf>
- Park, C. M. (2002). A study on factors related to the practice of breast-feeding.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9(2), 23-43.
- Park, K. M., Jung, S. J., Lee, J. E., & Kim, S. E. (2012). The effects of school health education on health knowledge, health attitude and health behavior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5(1), 68-76
- Sohn, I. H. (2007). *A study on the affecting knowledge about, attitudes towards and practice of breast-feed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Song, B. S., Cho, J. H., Lee, I. Y., & Kim, M. K. (2008). A study on knowledge on breast feeding of college students by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etary Culture*, 23(2), 268-272.
- Song, Y., Kim, A. J., Lee, Y. S., Yoo, T. W., & Kang, N. M. (2007). Evaluation the breastfeeding information websites for Korea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Food and Nutrition*, 20(4), 487-493.
- Spear, H. J. (2007). College students' experiences and attitudes regarding middle and high school-based breastfeeding education. *The Journal of School Nursing*, 23(5), 276-282.
- Yeo, J. H. (2005). Influencing factors in breast feeding dur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 Health Nursing*, 11(2), 142-147.
- Yun, S. N., Kim, Y. I., Choi, J. M., Cho, H. S., Kim, Y. H., Park, Y. N., et al. (2005). Health education needs of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and the status of health education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18(1), 1-14.